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3,4 월 선교지 소식 올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반대인 남아공은 가을이 깊어가며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종종 한국의 봄이 그립습니다.

선교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코사 성경 나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흑인 성도님들께 식량 나눔과 아울러 코사 성경 나눔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1 권 ₩18,000 으로 모금을 시작하면서 100 권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원했는데 무려 800 권을 나눌 수 있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야간 신학을 졸업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개척한 교회와 산골마을 교회가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습니다.



2. 현지 사역자 컨퍼런스

지난 4 월 3 일부터 6 일까지 3 박 4 일간 "Godly Living for Godly Leaders" 라는 주제로 Karl Peterson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먼 길 마다 앓고 오신 교수님 내외분과의 교체 또한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오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는 야간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들께 성도님들을 위한 코사 성경을 나누며 동역의 길을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무료 급식과 쌀 나눔

부활 주일은 라벤다 힐과 미첼스 플랜 지역 어린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화요일 마다 진행하던 식량 나눔은 잠시 중단하고 극빈자들을 위해 비상용으로 5kg 쌀 50 포대를 비축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37년의 세월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고 있음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능함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도제목 올립니다.

1. 진원, 진현이가 평생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 가도록
2. 교회 건축을 마친 사무라마셀 형제 교회가 사무실과 부엌, 화장실등도 건축할 수 있도록
3. 야간 신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 하도록

4.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신 드릴 때 까지 주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며 남아공에서 김영애 선교사 드립니다.